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연원 및 전개양상*

최 경 화**

목 차

- I. 머리말
- II. 모란문의 제작배경
- III. 모란문의 유형 및 양상
- IV.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근대적 양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 조선후기에는 조선 전·중기 청화백자에는 표현되지 않던 모란이 시문되었는데, 이것은 18세기 화단에서 모란도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조선후기 백자에 가장 많이 시문된 것은 회화풍이 아닌 도안풍의 모란으로 당초(唐草) 보다는 절지(折枝)형이 주로 시문되었는데, 절지형 모란 도상은 모두 그 연원을 당·송·오대 등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서모란(瑞牡丹)에까지 소급해 볼 수 있다. 서모란 도상은 중국 회화작품은 물론 원·명·청대 도자에까지 이어졌으며, 한·중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도자 및 회화 등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전기 청화백자에는 당시 국시(國是)로 내세운 유교로 인해 문양화 되지 못하다가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모란이 백자 기면에 전면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에는 18세기 이후 민화의 발달로 인해 꽃송이가 민화풍으로 시문된 것들이 확인되며,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는 모란을 사군자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096)

** 崔敬和, 경기도 문화재위원, florachoi1@naver.com

투고일: 2022. 04. 28. 심사완료일: 2022. 06. 16. 게재확정일: 2022. 06. 2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2..245>

반열에까지 올려 매화·대나무·국화 등과 함께 하나의 기면에 시문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백자 모란문은 근대기에도 그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뚜렷한 지역색을 띠며 발전하였던 양구백자나 해주백자에 이어 일상용기가 아닌 예술작품으로 평가되는 조선미전 입선작들에서도 시문되는 등 지속적인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 조선 후기, 도안풍 모란문, 절지형, 당초형, 서모란(瑞牡丹), 양구백자, 해주백자,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자기

I. 머리말

모란은 중국 육조(六朝, 229-589)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여 당 초기에 이미 중국을 대표할만한 꽃으로 자리잡고, 신라 진평왕(眞平王, 재위 579-632)대인 7세기 초 당나라에서 들어온 이후 조선 후기까지 정원화로써, 건축의장·회화 및 도자·복식·가구 등의 장식문양으로서, 불교미술 속의 공양화로써, 사원건축의 장엄문양으로서 군림하였다. 이러한 모란은 생태적 모습으로 인해 화왕(군주), 미인, 부귀 등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여왔으나, 송대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애련설(愛蓮說)」 이후로는 부귀의 상징으로 고착되었다.¹⁾

도자에서 모란은 이미 고려청자에서 매우 빈번히 문양화 되었을 뿐 아니라, 청자의 잔재를 보이는 조선전기 분청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상감백자에도 계승되었다. 그러나 유교이념과 부합하여 제작되었던 조선 전·중기 백자에서는 모란이 부귀의 상징성으로 인해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후 18세기에 오면 분원리 백자 기면에 모란이 다시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되다가 19세기에는 화훼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처럼 조선 후기 백자에 다시금 등장하는 모란의 출현은 매우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1) 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길 역, 『중국길상도안』, 예경산업사, 1992, 404쪽. “菊花之隱逸者也, 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 특별히 사생적이고 회화풍으로 시문한 모란문 이외에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도안풍 모란문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규명하고자 한다.²⁾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먼저 조선후기 분원리 백자에 모란이 시문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동시기 회화의 경향에서 찾아보고, 이러한 경향을 배태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당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3장에서는 도안풍 모란문의 대표적 유형인 절지형과 당초형 모란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며, 특별히 절지형 모란 도상의 연원이 중국 당·송·오대 무덤 벽화로까지 소급됨을 밝히고자 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조선후기 백자 기면을 흥미하였던 도안풍 모란문이 근대기에도 다채롭게 전개되는 양상을 양구와 해주백자 그리고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아주 최근에서야 모란문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유진, 「조선후기 청화백자 모란도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청화백자 모란문 형성시기를 18세기 말부터로 보며, 모란문 유형을 단순히 종속문 존재 여부로 나누는 가운데 길상적 의미의 종속문이 19세기 서민 수요에 기인하였다고 보았다. 이어 청자나 분청자의 모란 도상이 조선후기 청화백자 모란문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청화백자 모란문의 출현이 적어도 18세기 중반부터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모란문의 유형을 종속문 사용 여부로 단순히 구분하기 보다는 숫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도안풍 모란문의 양상을 아우를 수 있는 유형분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도안풍 모란문의 일부 유형은 청자와 분청자, 상감백자 모란문과도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모란문의 제작

1. 회화적 배경

조선 전·중기 백자에는 거의 표현되지 않던 모란이 18세기 들어 시문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 회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나, 도자사 연구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즉 18세기 들어 사대부 화가와 여향문인화가들 사이에 일반 감상화로서 모란도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심사정(沈師正, 1707-1769)·강세황(姜世晃, 1713-1791)·최북(崔北, 1720-미상) 등이 수묵 또는 수묵담채로 문인화풍의 모란도를 제작하였다.³⁾

이는 17세기부터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畫譜)』,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등을 비롯하여 중국으로부터 화보가 대거 유입되고 문인사대부들이 화보에 실린 모란도를 기본으로 하여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18세기 문인들이 정원을 조성하고 원예 서적을 발간하는 등 화훼에 관심이 많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⁴⁾ 이어 19세기에 들어서는 중인계층의 직업화가였던 허련(許鍊, 1808-1893)과 그의 영향을 받은 이정직(李定稷, 1840-1910)·송수면(宋修勉, 1847-1916) 등이 일필의 묵모란도를 그린 반면, 사대부 화가인 신명연(申命衍, 1808-?)·남계우(南啓宇, 1811-1898) 등은 실학적 회화관을 바탕으로 오히려 공필(工筆)의 채색 모란도를 제작하였다. 특별히 허련은 18세기 묵모란이 주로 화첩용이나 족자용으로 그려졌던 것과 달리 병풍의 형태로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채색 모란병의 수묵적

3) 이들 화가의 모란도 제작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강지원, 「조선 後半期 寫意花鳥 畫 研究 :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지애, 「현재 심사정의 화조화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 18세기 문인들이 정원을 조성하고 원예서적을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민,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회연구』35, 2005, 1-22쪽.

변안으로 채색 모란병 양식에 기반하여 제작하였다.⁵⁾

사실 18세기에 수묵으로 그려지면서 화폭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모란이 조선전기 화단에서 전혀 제작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이미 조선전기부터 궁궐에서는 모란이 그려진 병풍이⁶⁾ 의례에 중요 의물로 배설되었고,⁷⁾ 궁중 전각 내부에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모란이 궁궐과 사대부 집안의 의례용과 장식용 병풍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문인들에 의해 수묵 또는 수묵 담채의 감상용 회화로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조선전기 의례와 장식의 궁중미술 이외에 일반회화에서는 모란의 소재가 배제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이 국시(國是)로 내세운 유교와 모란의 상징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반회화에서 뿐 아니라 도자에서도 조선전기에는 유교의 군자를 상징하는 송죽매 일색으로 문양이 비교적 단조롭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감상용 회화에서 문인들에 의해 모란이 수묵으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18세기 후반이 되면 사군자의 소재들과 어울려 하나의 화폭에 그려지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강세황이 대나무와 함께 모란을 그렸고,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와 신위(申緯, 1769-1847)는

5) 심성미, 「19세기 모란도 성행과 조선사회의 부귀지향」, 『(講座)美術史』 제 46호, 2016, 118쪽.

6) 宮牡丹屏은 가례 뿐 아니라 길례(제사)와 흉례(喪祭)와 같은 궁중의례에 사용된 儀式畫이다. 궁모란병은 花中王, 富貴畫로서 모란의 기복적 상징성 이외에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國泰民安과 태평성대를 알리는 祥瑞로서의 상징성 또한 있어 복층적인 상징구조를 지닌다. 金紅男, 「朝鮮時代‘宮牡丹屏’研究」, 『美術史論壇』 제 9호, 1999, 63-65쪽.

7) 조선전기 의물로 배설된 궁모란병에 대해서는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와 의인왕후(懿仁王后, 1555-1600)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내용을 정리한 『선조·의인왕후부묘도감일방의례(宣祖·懿仁王后)附廟都監一房儀軌』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부묘 바로 전날 종묘 南門 밖에 신주를 미리 옮겨 임시 보관했는데, 이때 설치한 장막(幄次)에 모란병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다. 『안녕 모란』, 국립고궁박물관, 2021. 159쪽.

모란을 송·죽·매 등과 함께 군자도 병풍에 그린 것이 그 예이다.⁸⁾ 이것은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전·후기 문집에 실린 문인들의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다.⁹⁾

먼저 조선전기 문집에서 모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 「제사간원화(題司諫院畫)」는 사간원에 소장된 모란화를 보고 제화시를 쓴 것인데, 내용인즉 낭관의 강직한 품성이 매화를 닮았는데 어떻게 부귀화인 모란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냐는 것이다.¹⁰⁾ 이를 통해 조선전기에도 모란이 그려졌으며, 매화와는 거의 상반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흔(金訢, 1448-1492)의 『안락당집(顔樂堂集)』 「제화모란장자(題畫牡丹障子)」에서도 모란을 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국지색으로 묘사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¹¹⁾ 이러한 모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선후기에 오면 변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제화시가 있어 참고가 된다. 강세황은 자신의 모란도에 직접 쓴 제화시에서 모란을 몹시 사랑한다고 밝히고 있다.¹²⁾ 또한 『표암유고(豹菴遺稿)』에서는 모란을 서리와 눈을 이기고 피는 꽃으로 묘사하여 송·죽·매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다.¹³⁾

결국 모란이 18세기 일반회화에서 감상용 회화의 소재로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동시대 백자 문양으로까지 시문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후기 모란에

8) 심성미, 「조선후기 모란도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7쪽.
 9)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선 전·후기 문집 비교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심성미, 위의 논문, 56-59, 81-83쪽.
 10) 徐居正, 『四佳集』卷五, 「題司諫院畫」 “藥省郎官鐵石肝 一生羞作富貴顏 當時畫師何如者 不畫梅花畫牡丹”
 11) 金訢, 『顔樂堂集』卷之一, 「題畫牡丹障子」應製.
 12) 姜世晃, 『豹菴遺稿』, 「題手寫牡丹」 “最是洛陽黃紫花 絕憐相倚鬪芳華 自從彩筆傳神後 遮莫空階風雨多”
 13) 姜世晃, 『豹菴遺稿』, 「牡丹」 “一枝濃艷凌霜雪 還恐洛陽無此奇 庾嶺殘葩應失色 敢誇孤立歲寒時”

대한 인식 변화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당시 사회의 사상·경제·문화적 요인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곧 모란문의 출현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경제·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상·경제·문화적 배경

18세기에 회화에서 뿐 아니라 도자에서도 모란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과거와 비교해 모란에 대해 달라진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준 것은 당시 사상·경제·문화 등의 요인으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 성리학의 내용은 18세기 접어들면서 이기론(理氣論) 등의 관념적 문제에서 차츰 구체적 현실문제에 치중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중국에서 16세기 후반부터 출현한 양명학이 창조의 고증학으로 정착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특별히 18세기 초 주자주(朱子註) 해석을 둘러싸고 생긴 호락논쟁(湖洛論爭)¹⁴⁾ 통해 형이상학적 관념론에서 형이하학적 현실론으로 변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물(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다. 이러한 물관(物觀)에 입각하여 새로운 산업관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바로 북학파 학자들로 북학은 형이하학적 ‘물(物)’의 세계를 대변하였다¹⁵⁾

14) 조선후기 성리학에서 人性과 物性이 같은가 혹은 다른가에 대한 논쟁이다. 人物性同論을 주장하는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洛論이라 하였고, 人物性異論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충청도지방에 살고 있어 湖論이라고 칭하였다. 호락논쟁의 의미는 인성에서 물성으로 논쟁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며, 물성에 대한 접근은 형이상학적 관념적 학풍을 탈피하여 인간을 둘러싼 만물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는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86-91쪽 참조.

15) 박선경, 「18세기 조선시대 청화백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80, 87-88쪽.

참고로 북학은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학문의 추구대상이 될 수 없는 벽돌·옹기·자기

새로운 물관(物觀)으로 계도된 산업에 대한 북학자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이희경(李喜經, 1745-1805 이후)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먼저 백성의 물산을 제작한다”고 하였다.¹⁶⁾ 이것은 검약이라는 명분 아래 백성의 욕망을 억제하기 보다는 산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미 18세기 초 호락논쟁에서도 ‘욕망긍정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¹⁷⁾

이처럼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충족시켜야 한다는 변화된 사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란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긍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물질문화의 긍정적 평가는 이후 경화사족의 진보적 사상이 최한기(崔漢綺, 1803-1879)에서도 지속되어 도리에 부합되는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¹⁸⁾

모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앞서 언급한 조선후기의 변화된 사상 이외에 당시 경제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18세기에는 이양법으로 농업생산력이 증가되고, 농업생산력 발전에 기초하여 상품유통이 활발해졌는데 특히 대동법의 시행과 1678년부터 실시된 화폐유통은 18세기 상업에 큰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의 발달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국내경기를 호황으로 이끌었다.¹⁹⁾

등 사소한 것들에 대해 관심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16) 李喜經, 『雪岫外史』, “聖仁之治天下 必先制民產”

17) 박선경, 앞의 논문, 1999, 85-86, 103-104쪽.

18) 최한기는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한 주자학을 대체할 새로운 정신적 기준을 탐색하기 위해 전통주자학과 북학사상의 영향 아래 서학을 이해하여 ‘氣學’이라는 독자적 학문 세계를 개척하였다. 인간의 욕망 일체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았던 주자학의 입장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였고, 세속적 물욕을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봉학, 「19세기 경화사족의 생활과 사상 -해강 최한기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2, 1994, 114, 136쪽.

19) 金鐘圓, 『朝清交涉史研究：貿易關係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처럼 18세기 이래 급격한 농업생산력 발전과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으로 서울은 대상업도시·소비도시로 성장하면서 화폐경제가 모든 경제활동을 지배하였다. 그 결과 서울은 인구가 증가하고 공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상업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전국 유통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²⁰⁾ 특히 18세기 후반 서울은 상업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이익중시·물질중시 사회로 변모해갔는데, 이러한 것은 18세기 후반 수도 민의 80-90%가 상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²¹⁾ 이렇듯 18세기 상업발달로 인한 이익중시·물질중시 사회는 부귀에 대해 더욱 집착하게 되면서 모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당시 사상, 경제 이외에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존재하였다. 18세기에는 이념 중심의 사고가 해체되면서 추상적이고 일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념적 철학 대신 일상의 소소한 사물들에 대해 지식인들이 박물학적 관심과 함께 편집광적인 집착을 보였다.²²⁾ 그러한 가운데 화훼를 애호하고 감상하는 사회적 풍조가 생기고²³⁾ 실학에

1983, 74쪽.

18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청·일간 직거래로 인해 중개무역이 쇠퇴하나 개성상인에 의한 인삼재배의 성공으로 다시 대청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종래의 무역규모는 유지·계승되어 19세기 중반까지 이르게 된다.

20)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 研究』, 지식산업사, 1998, ‘서울의 商業都市로의 성장’ 참조.

21) 『承政院日記』 1497冊, 正祖 5年 11月 1日條. “都下之民 本無農作之食 故各司吏隸之外 率皆貿賤販貴 興利資 生者 十之八九”

22) 강혜선,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과 김려의 한시」, 『한국문화논총』 제 34집, 2006, 39쪽.

23) 18세기 중반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화훼 재배와 정원 경영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해지고, 관련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이 이 시기 문인들의 일반화된 취미였다. 이는 사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중국·일본과의 문화교류의 확대, 도시문화 확산이 가져온 일종의 웰빙 현상이었다. 정민, 앞의 논문, 2005, 1-22쪽.

영향받은 박물학적인 관점에서 상징에 매몰되지 않고 자연 생태적인 아름다움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어 모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식될 수 있었다. 더욱이 19세기 들어 여가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사대부에서 경제력을 수반한 중인계층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식 미술품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이로 인해 모란은 회화 뿐 아니라 각종 공예의 소재로 널리 애용될 수 있었다.

Ⅲ. 모란문의 유형 및 양상

1. 절지형

1) 절지형 모란문의 연원

조선후기 백자에는 회화풍의 모란문도 있으나 이는 숫자가 적고, 대개가 도안풍으로 시문되었다. 도안풍으로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절지형으로 크기가 큰 모란 한 송이를 시문하거나 아니면 모란꽃 2-3송이를 하나의 줄기선상위에 시문하였다(그림 1, 2).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도상적 연원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바로 당대(唐代, 618-907)·송대(宋代, 960-1279)·오대(五代, 907-960) 등 중국 고대 고분벽화의 ‘서모란(瑞牡丹)’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대(唐代)에 오면 황실에서 기르는 진금기화(珍禽奇花)의 대표 화초인 모란에 대한 가치화가 이루어져 ‘상서(祥瑞)’로운 의미의 꽃인 ‘서모란(瑞牡丹)’의 개념이 탄생 되었다. ‘상서(祥瑞)’는 왕도정치를 실현한 성왕(聖王)에게 나타나는 신묘한 현상으로, 예부터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중시되었다. 따라서 하늘의 정기가 내려 피어난 서모란은 ‘상서’로 인식되어 위정자가 이를 받으면 매우 안심하게 되었다.²⁴⁾

당대(唐代) 서모란에 대한 개념화에 이어 송대(宋代, 960-1279)에는 서모

란의 용어가 거듭 사용되고 특별한 형상이 제시되었다. 꽃잎이 많고 크기가 매우 큰 것(千葉), 대개 모란이 짙으로 붙어서 핀 것, 특별한 꽃 색깔 등의 모란을 서모란이라고 지칭하였다. 당·송대 열광적으로 발달한 모란의 원예 문화는 실제로 이러한 꽃들을 만들어냈으며,²⁵⁾ 상서라는 정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서모란의 특별한 조형은 자연스럽게 황제를 위한 병풍이나 묘실과 같은 의례공간에서 뿐 아니라 일상의 많은 중국 회화작품들과 공예품의 문양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당대(唐代)에 시작되어 송대(宋代)에 구체화되는 서모란의 이미지는 이후 중국 뿐 아니라 조선의 궁모란병(宮牡丹屏) 및 백자에 이어 일본 자기의 모란 도상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 당대(唐代) 황실 병풍이나 일반회화로 모란도의 예가 전하는 것은 없으나, 다행히 의례공간인 고분의 벽화가 남아있어 당시 서모란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 비록 벽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당시 회화의 높은 수준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주제와 양식 면에서 동시대 회화양상을 반영하므로 참고가 된다.

의례 공간에 표현된 서모란의 형태는 먼저 당대(唐代) 조성된 왕공숙(王公淑) 부부 합장묘(838년 조성)를 통해 알 수 있다. 단실의 북벽 전면에 <모란노안도(牡丹蘆雁圖)>가 그려져 있는데²⁶⁾, 이때 모란은 꽃잎이 겹겹으로 매우 풍성하고 커서 당시 서모란의 모습을 짐작케 해준다(표 1-1). 이 중에서도 특별히 꽃 무더기 오른편의 기러기 앞쪽에 있는 모란(표 1-1의 붉은색 부분)은 줄기 아래가 왼쪽으로 기울어 비스듬히 내려가는데 이 같은 표현은 조선후기 백자 절지형 모란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주목된다(그림 9, 12).

24) 고연희, 「한·중 영모화초화의 정치적 성격」,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74-176, 179쪽.

25) 고연희, 위의 논문, 177쪽.

26) 묘실 북벽은 시신을 안치하고 예를 올리는 곳으로 장례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벽에 모란도를 그렸다는 것은 모란의 의례적 기능이 컸음을 의미한다.

서모란 개념을 형상화한 당대(唐代) 고분벽화에 이어 송대(宋代)에 이르면 조선 후기 청화백자 모란(그림 9)과 보다 유사한 모란 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산대남교구송묘(山大南郊區宋墓)로 묘주의 생활풍속도 위로 연꽃과 대칭이 되게 커다란 모란을 그려 넣었다(표 1-2).²⁷⁾ 이때 모란은 줄기 아래가 왼쪽으로 향하며, 줄기 좌우로는 모란 이파리의 특징을 잘 살려 대칭으로 묘사하였다.

이어 송대(宋代) 호뢰촌(好牢村) 고분에서도 조선 후기 청화백자 모란 도상과 흡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표 1-3). 묘실 북벽과 동벽에 각각 이실(耳室)이 있고, 동벽의 이실 중앙의 산수화 한쪽 옆으로 모란도가 패축 형태로 그려져 있다. 이때 모란도는 절지형태로 큰 꽃송이 주위로 이파리가 방사상으로 퍼져있고, 그 아래 줄기 좌우로도 이파리를 그렸는데 이러한 표현은 조선 후기 청화백자 모란 표현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그림 1). 따라서 비록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조선 후기 청화백자 모란에 주류를 이루는 절지형 모란 도상의 연원은 당·송대 묘실벽화의 서모란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분벽화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꽃송이가 크고 줄기 아래가 좌향(左向)하거나, 꽃송이와 줄기 주위에 이파리가 묘사된 모란 이외에 또 다른 형태의 서모란 표현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조선 후기 백자 모란문과 연관이 있어 주목된다. 오대(五代, 907-960) 벽화고분을 대표하는 왕처직(王處直, ?-923)묘의 벽화로 후실 북벽에 서모란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모란의 형상이 있다(그림 3, 표 1-4). 바로 <모란호석도(牡丹湖石圖)>로 거대한 화폭 중앙에 태호석을 배경으로 모란을 묘사하였다. 모란은 위로 상승하는 형태로 전체 구도는 부채꼴 모양인데, 이 중에서도 직선에 가까운 각각의 줄기에 모란 꽃송이가 2-3개씩 매달린 형태(표 1-4의 노란색 원 부분)는 조선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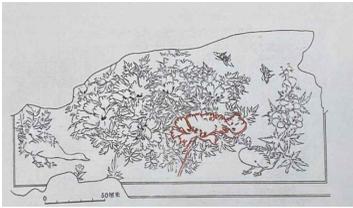
27) 모란과 연꽃이 혼재하는 것은 모란이 의례공간에 들어오면서 묘실에 이미 존재하였던 불교 문화권 속의 연꽃과 함께 그려졌기 때문이다.

백자에도 묘사되어 있어 좋은 비교가 된다(그림 6).

이와같이 직선의 줄기선상에 상승하는 모란 꽃송이를 표현하는 것은 요대(遼代, 916~1125) 묘실벽에 그려진 모란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그림 4), 현재 모란이 묘사되어 있는 병풍의 가운데 폭에는 수직으로 높이 뻗어 올라가는 줄기 위에 커다란 모란꽃송이를 표현하였다. 더욱이 이 경우는 모란이 병풍의 형태로 그려져 조선시대 궁모란병을 연상케 하는데(그림 5), 이와같이 요대 묘실 북벽의 모란도의 경우는 병풍형태가 주를 이루며 묘실 전체 장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⁸⁾ 중요한 것은 중국 고분벽화에 볼 수 있는 직선에 가까운 줄기에 상승하는 모란 꽃송이가 조선후기 백자에도 시문되었다는 사실이다(그림 6).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경우는 모란이 수직의 형태가 아닌 기면의 여건에 맞추어 가로나 혹은 백자의 형태를 따라 모란 꽃송이를 줄기선상에 2-3송이씩 시문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 7).

이상을 통해 조선후기 백자에 나타나는 도안풍의 모란절지문의 연원이 고대 중국 묘실벽화에 표현된 서모란에까지 소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중국 고분벽화 모란도

	
<p><표1-1> <牡丹蘆雁圖>, 王公淑 부부 합장묘, 838년, 묘실북벽, 北京市 海澱區 八理庄</p>	<p><표1-2> 山大南郊區宋墓, 송대 추정, 山西省 濟南市</p>

28) 박은화, 「五代·遼·北宋代古墳壁畫의 花鳥畫考察」, 『中國史研究』제 91집, 2014, 99쪽.

	
<p><표1-3> <牡丹圖>, 好牢村고분, 송대 1102년 이후, 동벽 耳室, 山西省 壺關</p>	<p><표1-4> <牡丹湖石圖> 중 모란 부분, 오대 10세기, 王處直墓 후실북벽, 河北省 曲陽縣</p>

2) 절지형 모란문의 양상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로 도안화된 형태로 시문되었으며 절지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중 하나는 큰 꽃송이 주위에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수직 혹은 줄기 아랫부분이 왼편으로 비스듬히 기운 형태이다(그림 1, 9, 12).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의 줄기선상에 연속적으로 꽃송이가 2-3개 매달려있는 형태이다(그림 2, 6, 7, 15). 본 항목에서는 이 2가지 유형의 모란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모란꽃 한 송이

① 조선후기 이전

조선후기 백자에 큰 모란꽃 한 송이를 시문하고 꽃송이와 줄기에 이파리를 묘사한 서모란 도상이 당·송대 고분벽화 및 자기를 비롯하여 이후 원·명·청대 자기에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표 1-1, 1-2, 1-3, 그림 10, 11), 과연

조선후기 백자에만 이러한 모란 표현이 존재하였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 이전 자기나 공예품에 표현된 것들 역시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예로 고려시대 의례공간에서 사용되었던 석관이나 향완에서 이와 유사한 모란 도상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2-2). 이는 고려시대에 중국과 빈번한 교류를 통해 이미 ‘서상지물(瑞祥之物)’ 혹은 ‘성군(聖君)’의 상징으로서 서모란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서모란의 출현기폭과 어명에 의해 서상화로서 모란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²⁹⁾ 따라서 고려 궁중에서도 모란도가 그려지고 향유되었을 것이나 현재 전해지는 고려시대의 모란도는 아쉽게도 찾아볼 수 없다.³⁰⁾

청자 뿐 아니라 청자의 잔재를 살펴볼 수 있는 조선전기 분청자와 그로부터 영향받은 동시기 상감백자에서도 중국 당·송대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었던 서모란 도상을 살펴볼 수 있다(표 3-1, 3-2, 3-3).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초기에도 궁궐에서 임금의 모란을 감상하며,³¹⁾ 여전희 상서의 보고가 이루어지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³²⁾ 결국 고대

29) 『고려사절요』 권 24, 충숙왕 4년. 어떤 사람이 魏王의 客館 뜰 벽돌에 비친 광채가 모란꽃 형상을 이룬 것은 하늘이 상서를 내리어 왕의 성덕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고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여 후사하고 화공으로 하여금 그 형상을 그리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30) 고려시대 모란도 제작을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安軸(1282-1348)의 「夢見西掖同舍諸賢」이 전한다. 詩 가운데는 궁궐의 ‘모란병’에 대한 언급이 있어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의 행사에 사용되었던 모란병이 고려시대에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安軸, 『謹齋集』 卷1, 「夢見西掖同舍諸賢」 “一辭西掖傍東溟 過幾樓臺幾驛亭 宿志已償山水窟 高吟還憶牡丹屏 別來無信顏雖施 夢裏相逢眼尙青 何日朝天參枕上 共傾宣醞醉還醒”

31) 태종이 궁궐에서 상왕(上王)을 모시고 모란을 감상한 기록이 있다. 『太宗實錄』 卷23, 太宗 12年 4月 1日條.

32) 조선전기 祥瑞 보고의 예로는 경산 부사 이황이 상서로운 영지(영이 3개)를 캐서 바친 것과(『太祖實錄』 卷5, 太祖 3年 2月 15日條), 태평성대 때에 단물이 솟아난다는 예천(醴泉) 위를 쌍학이 날아 돌았다는(『太宗實錄』 卷13, 太宗 7年 3月 15日條)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같은 祥瑞의 보고는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으며, 인천부에서 엄청난 크기의 바다거북을 瑞祥之物로 바치기도 하였다(『高宗實錄』 卷11, 高宗 11年 6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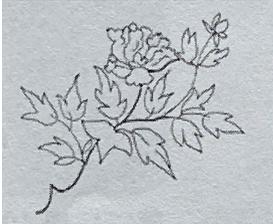
중국에서의 상서와 서모란 전통이 주변국에서까지 오랜 시간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전통은 현재 실례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고려시대 이전의 미술품에도 서모란 표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³⁾

이처럼 조선전기 분청자·상감백자 등에는 모란이 시문되었으나, 유독 동시기 청화백자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모란이 지니는 부귀의 상징성이 조선의 국시(國是)였던 유교의 덕목과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조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자기인 청화백자에는 모란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건국 직후 청화백자 문양에 모란과는 대척점에 놓인 송죽매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히려 이 시기에 모란이 시문되지 못하였던 이유를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한다. 조선전기 뿐 아니라 조선중기 청화백자에도 모란이 거의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같이 오랜 기간 시문의 단절로 볼 때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은 그 이전 시기의 청자·분청자·상감백자에 시문된 모란문의 전통보다는 18세기 이후 중국과 빈번한 교류와 길상문화 만연으로 인해 중국자기의 모란문이 직접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이전 청화백자 모란문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자료의 출현을 기다려 보고자 한다.

20日條).

33) 唐 태종(599-649)이 이웃 왕실의 진평왕(재위 579-632)과 선덕여왕(재위 632-647)에게 선물로 주었던 새나 곤충 없이 그려진 국색천향의 모란도가 바로 서모란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金紅男, 앞의 논문, 1999. 82-84, 91쪽). 따라서 당 황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던 신라 미술품에 서모란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

<표 2> 고려시대 공예품에 나타난 서모란 도상

석관	향완
	
<p><표 2-1> 석관 내부의 모란문, 12세기, 국립민속박물관</p>	<p><표 2-2> 동제 은입사연화모란문향완 표면의 모란문, 12세기, 이화여대박물관</p>

<표 3> 조선후기 이전 자기에 표현된 서모란 도상

청자	분청자	상감백자
		
<p><표3-1> 청자상감모란절지문주자, 12세기, 고 14.5cm, 구경 3.3cm, 저경 10.1cm, 국립중앙박물관</p>	<p><표3-2> 분청자조화박지모란문 병, 15세기, 고 31.1cm, 구경 7.9cm, 저경 10.2cm, 서울역사박물관</p>	<p><표3-3> 백자상감모란문병, 15세기, 고 34.2cm, 구경 8.6cm, 저경 10.0cm, 원광대박물관</p>

② 조선후기

우선 모란꽃 한 송이를 시문한 예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청화모란문호를 예로 들 수 있다(그림 1). 기면에 짝 차게 만개한 모란꽃 한 송이를 절지형태로 묘사하였는데, 수직의 줄기 좌우에 대칭이 되게 이파리를 시문하고 꽃송이 주위로도 3곳에 이파리를 묘사하였다. 이 모란 도상은 앞서 본 송대의 호뢰촌 동벽 이실(耳室)에 묘사된 모란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표 1-3). 꽃송이 내부의 세부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고, 줄기와 꽃송이에 붙어있는 이파리의 갈라진 개수가 각각 3개와 5개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모란 도상의 연원이 송대 서모란 도상에까지 소급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호의 굽 주변에는 ‘신희큰던고간티둥쇼스십’의 명문이 있어 1851년 대전(大殿)에서 사용된 궁 소용 자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궁소용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란 꽃송이의 표현이 궁모란병의 모란 꽃송이와는 차이가 있다. 즉 백·적·황·청·분홍색의 궁모란병의 모란은 만개한 모란의 표현 시 전체 모습이 원형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5). 그런데 백자 호의 만개한 모란 꽃송이는 마름모에 가까운 형태로 표현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모란은 민화 모란도에서 찾아볼 수 있어(그림 8), 궁소용 백자임에도 표현은 민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³⁴⁾ 이 시기 민화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지만 궁모란병의 모란보다는 민화 모란도의 모란을 참고하는 것이 훨씬 쉽고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모란을 주술적 축복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뿐 궁모란병의 모란 표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 민간 미술이 궁중 미술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또 다른 예로는 이 당시 혁필화가 궁에서 감상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궁모란도와 민화 모란도에는 모란꽃의 정면과 측면 이외에 뒷면도 표현되

34) 조선후기 백자 문양과 민화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최경화, 「조선후기 청화백자 문양과 민화와의 상관성 고찰」, 『한국문화연구』 34, 2018, 151-181쪽 참조.

고, 바람에 휘날리는 풍모란이 묘사되기도 하나 백자 모란문에는 그러한 다채로운 표현들은 살펴볼 수 없다. 이는 회화의 내용이 도자 기면에 문양으로 번안될 때에는 소수의 표현 양상 보다는 일반적인 양상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히 다섯 개로 갈라진 <그림 1>의 모란 이파리 일부는 끝부분이 타원형의 작고 가는 원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접히거나 말린 이파리를 한번 꼬아 원의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매우 비사실적이고 장식적인데, 다름 아닌 상서로운 모란 즉 서모란을 나타내는 표현방식이기도 하다.³⁵⁾ 이 같은 표현은 우리의 궁모란병과 민화 모란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그림 5)³⁶⁾, 앞서 본 <표 1-2> 산대남교구송묘의 모란도의 꽃잎과 나무 이파리의 끝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회화의 서모란 표현방식이 우리의 회화나 공예 표현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모란꽃 한 송이를 시문한 것 중에는 줄기 아래가 왼편으로 치우쳐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청화 뿐 아니라 양각·동화의 경우도 있는데(그림 9), 좌향하는 비스듬한 줄기는 당대 왕공숙묘와 송대 산대남교구 묘실의 모란 표현과도 유사하다(표 1-1, 1-2의 붉은색 부분). 줄기 아래가 왼쪽으로 향하는 모란은 실제로 중국 자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대나 북송대 삼채·백자·백지철화 등으로부터 원·명·청대 자기에까지 이어진다(그림 10, 11). 따라서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 중 크기가 큰 모란 한 송이만을 묘사한 유형은 당대 이후 모란의 가치화로 인해 서모란의 표현이

35) 접히거나 말린 이파리의 ‘卷葉’ 현상은 중국 고대 墓壁의 모란도가 전개되는 가운데 추가되어 모란도의 의례적 비자연적 형상을 조형화하였다. 송대 시인 宋祁(998-1061)는 일찍이 권엽을 상서의 기운으로 인식하였다. 권엽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12세기 무렵부터 널리 등장한 듯하며, 송대 건축장식이나 원대 청화백자 모란문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고연희, 앞의 논문, 2012, 196-198쪽.

36) 궁모란도나 민화모란도에서는 이파리 끝이 타원형태이고, 여기에 붉게 채색까지 하여 매우 화려하다.

회화를 비롯하여 공예나 건축 등 미술 전반에 만연한 가운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시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에서 모란 줄기가 좌향하는 예 중에는 줄기 아래가 다시 한번 왼편으로 꺾이는 예가 있는데, 이때 모란은 청화, 철화, 양각, 청화+동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그림 12). <그림 12>와 같이 줄기 아래가 다시 한번 수평에 가깝게 왼편으로 꺾이는 형태는 명대 자기에서도 볼 수 있어 양자 간 영향관계를 상정해볼 수 있다(그림 13).

(2) 2-3개의 모란이 줄기로 이어지는 도상

절지형 문양으로 앞의 커다란 모란꽃 한 송이를 시문한 도상만큼이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3개의 모란 송이가 하나의 줄기선상에 표현되는 도상이다. 이것은 앞의 모란꽃 한 송이만을 시문한 모란문과 같이 발·대·접·접시·병·호·합·연적 등을 비롯하여 사각수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에서 볼 수 있다(그림 2, 6, 7). 백자청화모란공작문호는 18세기 중엽 경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줄기선상에 표현된 모란 도상으로, 공작 좌우에 모란꽃을 하나의 줄기에 3송이씩 표현하였다(그림 6). 왼편 줄기선상의 맨 위의 모란 꽃봉오리를 제외한 꽃송이들은 모두 만개한 형태로 각각의 꽃송이 주변에 이파리를 방사상으로 묘사하였다. 좌·우에 줄기선상의 모란 뿐 아니라 중심부 아래 괴석과 그 위로 학을 상·하로 묘사하는 형태는 중국 원·명대 자기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 중국과의 영향관계를 시사해준다(그림 14). 그러나 <그림 6>의 모란 이파리는 실제 형태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 같은 비사실성은 공예 문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줄기선상의 도상은 호나 병과 같은 기종에서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묘사되기도 하나(그림 6, 15), 접시의 경우는 내면에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기면에 한계로 인해 접시의 형태를 따라 둥글게 휘어지기도 하였다(그림 7). 그러나 발, 대, 접 등에서는 대부분 기면의 여건에 맞추어 외면에 횡으로

묘사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신미제슈합고간칠독’의 명문이 있어 1871년 재수합(齋壽閣) 소용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접이 그 예이다(그림 2). 이 경우는 줄기선상에 위치한 모란꽃 2송이가 외면에 횡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모란 아랫부분의 줄기가 왼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다. 이 대접은 궁 소용 백자 임에도 불구하고 외면에 만개한 모란은 궁모란병에서 볼 수 있는 원형의 형태(그림 5)가 아닌 민화에서 볼 수 있는 마름모에 가까운 형태이어서 민화 모란도를 모본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 궁 소용 백자의 모란문이 민화의 영향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앞서의 ‘신혜’명 백자호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그림 1, 8). 또한 이 대접의 내저에는 2중 원권 안에 모란 한 송이가 절지형태로 시문되어 있는데, 꽃송이 주변에 방사상으로 이파리가 달려있고, 줄기 좌우로도 이파리가 달려있어 앞의 <그림 1>의 모란 유형과 같다. 따라서 이 대접은 조선후기 백자에 가장 많이 그려진 도안풍의 절지형 모란의 유형이 하나의 기면에 모두 시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개의 모란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줄기선상의 도상은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실의 의례를 정리한 가장 이른 기록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의 흉례 부분 중 흉례 때 사용하는 물품인 요여(腰輿)에서 이다(그림 16).³⁷⁾ 요여의 네 면에는 2송이의 모란이 하나의 줄기 위에 있는 줄기선상의 모란 도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모란꽃 주위에는 방사상의 모란 이파리가 백자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요여의 줄기선상의 모란도상을 자세히 보면 궁모란병에 묘사된 모란도의 일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모란도 병풍을 보면 토파 위에 모란이 3개의 세로의 줄기선상에 5-7송이씩 수직상승하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그림 5). 그러나 병풍에 표현

37) 망자를 능에 묻을 때에는 明器와 옷·장식품(服玩) 등을 함께 묻는데, 이때 이것들을 싣고가는 가마를 요여라고 한다.

된 모란의 웅장한 규모는 요여나 백자와 같은 공예품의 협소한 공간에서는 모란꽃 두 송이나 아니면 여기에 꽃봉오리를 곁들이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번안되었다.³⁸⁾ 따라서 백자와 요여와 같은 공예품에 나타나는 2-3개의 모란이 하나의 줄기선상에 나타나는 도상은 궁모란병과 같이 줄기선상 위에 표현된 모란도상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줄기선상의 모란도상과 연관하여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선전기 고려청자의 잔재를 보이는 상감백자, 분청자 등에서는 하나의 줄기 위에 모란꽃 2-3송이가 묘사되는 모란도상은 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앞서 본 모란꽃 한 송이만을 시문하였다는 점이다(표 3-2, 3-3). 이것은 조선전기에 고려청자의 모란문이 도자에 재생산되는 가운데 시문이 용이한 모란꽃 한 송이만을 약화된 형태로 시문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줄기선상의 도상이 서모란의 출현기록과 어명에 의해 서상화로서 모란도가 제작되었던 고려시대의 청자에서 빈번하게 그려졌던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 17-1). 더욱이 이러한 줄기선상의 모란도상은 중국 오대(907-960) 왕처직묘(그림 3, 표 1-4의 노란색 원 부분)와 요대(916~1125) 대동십리포 28호묘(그림 4) 등의 북벽에 나타난 서모란 도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조선후기 줄기선상의 모란도상의 연원은 중국 오대·요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선후기 백자 줄기선상의 모란문은 대부분이 청화로 시문되었으며, 철화나 동화, 안료 혼용의 예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양각은 소수 존재하고 있다. 줄기선상의 양각 모란문 중에는 사각병에 수직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장식된 예가 있는데, 이 경우 국화·대나무·매화와 함께 양각되어 모란이

38) 참고로 조선전기에 오면 고려시대에 비해 모란 문화가 축소되어 청화백자나 감상용 회화 등에는 나타나지 않고, 궁모란병이나 요여, 산릉의 리石 등과 같이 주로 의례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전기에 모란을 부귀와 경국지색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였던 것과 연관이 깊다.

사군자와 같이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15-1). 이것은 모란이 조선전기 부귀와 경국지색의 이미지로 부정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조선후기가 되면 모란을 애호하고 심지어 유교를 상징하는 송죽매와 동일시하였던 사회적 인식이 도자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때문으로,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본고 2장의 ‘회화적 배경’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2. 당초형

조선후기 백자의 도안형 모란문은 앞서 본 절지형태와 그리고 당초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란당초문의 형태는 모란절지문에 비해 그 수가 적다. 이 시기 백자에 나타나는 모란당초문의 특징은 모란 꽃송이를 완전히 한 바퀴 휘감은 채 돌아가는 격한 형태는 찾아볼 수 없고, 당초의 형태가 완만한 ‘~’의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그림 18). 격한 소용돌이 모양의 당초형태가 고려청자나 분청자, 상감백자에 모두 존재하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9).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모란당초문의 당초 부분에는 대부분 모란 이파리가 아닌 복숭아 이파리가 표현된다는 사실이다(그림 18). 이처럼 모란꽃에 복숭아 이파리의 결합 형태는 도자와 같은 공예에서 볼 수 있는 비사실성으로, 조선후기 복숭아문의 유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18세기 4/4분기로 추정되는 분원리 1호요지 가마2호의 안정층위에서는 모란문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안화된 복숭아문 백자가 많은 수량 출토되었다.³⁹⁾ 따라서 복숭아문의 유행이 모란당초문 표현에도 영향을 주어 이파리 끝이 길고 뾰족하며 어긋난 복숭아 이파리로 구성된 당초문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도자에 나타나는 이 같은 비사실

39) 최경화, 「朝鮮後期 分院里時期 官窯白磁研究-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17쪽.

성은 하나의 모란꽃 이파리의 일부는 모란 이파리를, 나머지는 모란이 아닌 다른 나무의 이파리를 시문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조선후기 백자모란당초문은 대부분이 청화시문이나 간혹 동화안료를 혼용한 예가 있다. 그 예로 安宅소장의 백자청화동채모란당초문호는 모란꽃 부분만 동채하고 당초 부분은 청화로 시문하였다(그림 18). 동채한 모란꽃은 꽃잎이나 세부표현 등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어김없이 당초는 모란 이파리가 아닌 복숭아 이파리를 시문하여, 실제로 모란 이파리를 시문한 모란당초문은 오히려 드문 실정이다(그림 20).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은 이처럼 당초문과 결합하여 부귀만대의 길상 우의를 띠기도 하였는데, 모란과 결합하는 길상의 소재는 당초문 외에도 새, 괴석, 박쥐, 나비, 칠보, 수복자문 등으로 다양하다. 모란문은 이처럼 다양한 결합물들을 사용해 길상성을 배가하기도 하였다.

3. 간략화 및 변형

도안화된 절지형 모란문 가운데 형태가 간략화되었거나 변형된 것은 대개 제작시기가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먼저 모란꽃 주위로 방사상의 모란 이파리가 붙어있는 형태(표 4-1)는, 앞서 본 절지형 모란에서 줄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즉 모란꽃 주위에 이파리가 달려있고 줄기 좌우에도 이파리가 있는 유형의 경우, 시기가 내려가는 것 중에는 줄기의 길이가 짧아진 예들을 볼 수 있는데(표 4-2), 이 같은 형태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 줄기가 아예 생략된 꽃+이파리의 조합으로 생각된다. 꽃+이파리 조합의 접시 중에는 <표 4-1>의 모란 꽃송이를 절반으로 자른 반원형태의 모란을 접시 내측면에 빙 돌아가며 장식한 예도 있다(표 4-3).

이렇듯 모란줄기가 생략된 채 꽃+이파리만을 간략하게 시문한 모란도상

의 제작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바로 왕의 초상을 봉안하고 제사를 올린 창덕궁 신선원전에 있는 교의(交椅)가 그 예이다(그림 21).⁴⁰⁾ 교의의 가죽 좌판 위에는 꽃송이+잎만으로 된 모란이 표현되어 있고, 그 옆에는 ‘壽’자 도안 주위로 박쥐를 방사상으로 배치하였다(그림 21, 21-1). 신선원전은 1921년 이왕직에서 창덕궁 안에 건립한 새 선원전이므로⁴¹⁾ 신선원전의 교의는 하한이 1921년이다. 따라서 교의에 장식된 모란 역시 하한이 1921년이어서, 백자에 꽃+잎 형태의 모란문은 20세기 초 혹은 그보다 이른 19세기 말에 유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략화되고 변형된 모란문으로는 모란꽃 2개를 겹쳐 시문한 예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청화모란문접시가 그것으로(표4-4), 중첩된 꽃잎 양쪽으로 나무 이파리가 뻗어있다. 겹쳐 표현된 모란꽃은 매우 평면적이고 단순하며 도식적이다. 2개의 중첩된 모란꽃 사이 2곳에는 모란꽃은 생략한 채 모란 이파리만을 시문하였다.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 중 간략화 및 변형의 또 다른 예로는 모란꽃 없이 모란 이파리만을 시문한 것이 있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백자청화모란엽문호가 그 예로 주문양대에는 추상화된 당초나 나비를 시문하고, 손바닥 모양의 이파리를 건부에 등성등성 시문하였다(표 4-5). 시기가 내려가면서 모란 이파리만을 문양화한 예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서 본 <표 4-4>의 접시 내면 2곳이나 이 시기 연적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절지형 모란문에 이어 모란당초문이 간략하게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문양도 있다.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백자청화모란문호가 그 예로 전체적으로 문양이 소략한 가운데 동체 상단에만 문양을 시문하였다(표 4-6). 이때 모란꽃은 위의 <표 4-4>의 중첩된 모란꽃과 같이 형태만을 매우 간략하게 잡아 평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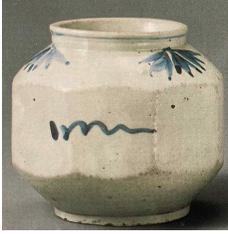
40) 교의란 제사를 지낼 때 신주(神主)를 모시는 다리가 긴 의자를 뜻한다.

41) <http://encykorea.aks.ac.kr>

으로 시문하였다. 그럼에도 이것이 모란당초문의 변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꽃잎 주위로 표현된 이파리의 형태 때문이다. 조선후기 백자 모란당초문의 당초 부분은 대부분이 이파리가 길고 끝이 뾰족하며 어긋나기한 복숭아 이파리를 시문하였는데(그림 18), <표 4-6>에 나타난 이파리 역시 길이가 짧아지고 끝이 뾰족하나 어긋나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복숭아 나무의 이파리이다. 이 역시 당초의 줄기 부분이 생략된 채 모란꽃과 복숭아 이파리만을 시문하여 줄기의 생략화 현상을 볼 수 있다. 간략화된 모란당초문은 호 이외에 19세기 말로 추정되는 병, 연적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표 4> 간략화 및 변형 모란문

		
<p><표4-1> 백자청화모란문접시, 19세기 말-20세기 초, 고 3.6cm, 구경16.3cm, 저경 9.4cm, 이화여대박물관</p>	<p><표4-2> 백자청화모란문소호, 19세기 말-20세기 초, 고 6.7cm, 구경 4.7cm, 저경 3.8cm, 이화여대박물관</p>	<p><표4-3> 백자청화모란문접시, 19세기 후반, 고 3.9cm, 구경17.0cm, 저경 9.3cm, 국립중앙박물관</p>

		
<p><표4-4> 백자청화모란문접시, 19세기 후반, 고 4.4cm, 구경 16.5cm, 저경 9.1cm, 국립중앙박물관</p>	<p><표4-5> 백자청화모란엽문호, 19세기 말-20세기 초, 고 12.8cm, 구경 9.0cm, 저경 8.8cm, 이화여대박물관</p>	<p><표4-6> 백자청화모란당초문호, 19세기 말, 고 20.3cm, 구경 9.7cm, 저경 9.2cm, 이화여대박물관</p>

Ⅳ.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근대적 양상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은 전체 화훼문 가운데 가장 많이 애호되며 시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파로 인해 모란문은 근대기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지역색을 띠고 전개되는 지방백자나 조선미술전람회 입선 도예작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조선후기 관요백자 모란문을 계승발전 시킨 양구 및 해주 백자의 모란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예술품에서 구현된 근대기 모란문의 양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양구백자

양구백자에서도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근대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에 앞서 먼저 양구백자에 대해 간략히 이해하고자 한다. 양구는 고려말부

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요업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양질 백토가 다량 매장되어 있고, 요업에 적합한 자연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양구지역의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해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이미 언급되어 있고, 양구백토에 대해서는 각종 관찬사료, 법전, 읍지 등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⁴²⁾ 사료에서 기록하고 있는 양구토 관련 내용은 백토의 우수성과 굴취에 관한 것으로, 우수한 양구토의 편리한 운송을 위해 분원이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으로 이설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⁴³⁾

이처럼 양구토는 관요백자 제작에 중요함으로 인해 『속대전(續大典, 1746)』과 『육전조례(六典條例, 1867)』에 이어 『분원자기공소절목(分院磁器貢所節目, 1884)』에도 기재되어 민영화 이후 공소시기(1883-1895)에도 사용되었다.⁴⁴⁾ 따라서 그 위상과 함께 근대기 양구지역 요업의 활발함 또한 짐작해볼 수 있는데, 1909년 조사보고에 의하면 강원도 지역 중 양구가 가장 높은 연간 자기 생산액을 보였을 뿐 아니라 강원도는 물론 경기도지역까지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⁴⁵⁾ 양구지역 요업이 활발했음을 실증해 준다.

또한 1913년에는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에 건평 36평에 종사자 10명 규모의 '도자기개량조합(陶磁器改良組合)'이라는 공장이 설립되었고,⁴⁶⁾ 1915년

42) 『양구칠전리 백자가마터』, 국립춘천박물관, 2013, 34-36쪽.

43) 『楊根邑誌』 土産條. 양구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기록에 여러 지역 흙 가운데 가장 우수하여 이 흙을 사용하지 않으면 뒤틀린다고 하였다(『備邊司臚錄』 60冊, 肅宗 36年 7月 16日條). 실제로도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료에 기재된 양구토는 방산지역에서 채취된 견운모질 陶石으로, 점성이 뛰어나고 산화철 함량이 1%미만의 백색도가 높은 우수한 원료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양구군, 『楊口 方山の 陶窯址 地表調査報告書』, 2001, 230-231쪽).

44) 『續大典』 卷6, 工典 雜令條; 『六典條例』 卷2, 吏典 司饗院 附分院條; 『分院磁器貢所節目』 許給秩.

45) 農商工部, 『官立工業傳習所報告』 第一回, 京城: 農商工部, 1909, 42-43쪽.

46) 朝鮮總督府, 『朝鮮の窯業』, 1926, 24쪽

조선물산공진회에서는 양구군의 도자기개량조합이 출품한 도자제품이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하여⁴⁷⁾ 당시 양구백자의 우수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더욱이 총독부 도자정책에 의해 운영되었던 도자기제조공동작업장이 여주, 평양에 이어 1932년은 양구에도 설립되었는데,⁴⁸⁾ 중앙시험소 직영 작업장은 민간 설립 제조장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와 제조기술 그리고 시판에서도 큰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전부터 국내에 실시한 통제 경제로 인해 원료 공급이 중단되면서 도자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40년대 초 가장 두드러져 대부분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 1940년대부터 해방되는 해까지는 일본의 전시체제로 인한 산업 쇠퇴로 전국의 주요 공장들 대부분이 사라지고, 지방 가마 역시 휴·폐업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양구의 도자기제조공동작업장도 폐업된 것으로 보인다.⁴⁹⁾

양구백자는 칠전리 백자가마터(1890년대-1930년대 무렵 운영) 발굴을 통해 분원리 백자와 흡사한 다종다양한 식기·제례기·문방구·화장용구·실내용구·잡구 등이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⁵⁰⁾ 뿐만 아니라 각종 화훼(초화도

47) 朝鮮總督府, 『始政五年紀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第一卷, 1916, 455-456쪽(정두섭, 「양구지역 백자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57-158쪽에서 재인용).

‘도자기조합’이란 기존 중소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조합제로 통합 혹은 개편하기 위해 민간 종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운영체이다. 설립취지는 도자기공동작업장(각주 49참조)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설립자 대부분이 지방가마 운영자들이어서 도자기작업장에 비해 일체의 제약이 적었다.

48)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정책과 제작구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72-74쪽.

49) 정두섭, 앞의 논문, 2011, 164 - 165쪽.

참고로 도자기공동작업장은 총독부 요업장려책에 따라 시험소 요업부가 설립시킨 운영체로 관련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민수업자들에게 기초적 제도술을 지도하여 회생시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50) 『양구칠전리 백자가마터』, 국립춘천박물관, 2013 참조.

란·복숭아), 문자(壽·福·內·囍·永·祭), 그물문, 잉어, 수파, 소나무, 각종 표식 등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었는데, 화훼문 가운데서는 모란문의 제작이 빈번하였다. 양구백자 모란문은 주로 절지형 위주로 나타나며 당초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먼저 양구백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모란문호는 커다란 모란꽃 한 송이만을 시문한 것으로(그림 22), 꽃송이 주변과 줄기 좌우에 이파리를 시문하여 전체적으로는 조선후기 관요백자 모란문과 유사하다(그림 1, 9). 다만 꽃송이 주위에 이파리가 우측 한 곳에만 있고 여기서 다시 긴 줄기가 뻗어나가는데, 이렇듯 이파리에 나 있는 줄기를 매우 길고 힘차게 표현하는 것은 양구백자의 다른 화훼문에서도 볼 수 있는 큰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바람에 저항하듯 힘차고 동감 있는 모란절지의 표현 역시 관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그러나 모란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견부에 여의두문을 배치한 것 등은 조선후기 분원리 백자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잘 보여준다.

모란꽃 한 송이만을 시문한 양구백자 중에는 매화 등을 함께 시문하여 사군자를 구성하고자 한 예도 있다(그림 23). 이것은 전술한 바 있듯이 모란을 사군자의 소재로 간주하였던 조선후기 사회의 변화된 인식 때문으로 조선후기 분원리백자에서도 볼 수 있어 이 역시도 양자 간 깊은 상관관계를 시사해 준다(그림 15). 다만 양구백자의 경우 매화와 함께 새를 곁들였는데, 이때 서로 상응하지 않고 앞의 새의 등을 응시하며, 매화 가지에 앞가슴이 걸린 듯 위태롭게 앉아있는 표현 등은 민화를 연상케 한다.

양구백자 절지형 모란문에는 조선후기 관요백자에서와 같이 모란꽃 2-3 송이가 줄기선상으로 이어지는 형태도 있다. 양구백자박물관 소장 백자청화 모란문호가 그 예로 원형에 가깝게 만개한 두 개의 꽃송이를 줄기선상에 배치하였다(그림 24). 그러나 이때 줄기는 직선으로 선도 2줄이어서 조선후기 분원리백자 모란문의 줄기 표현과는 차이를 보인다(그림 2). 2개의 모란을 줄기선상으로 연결한 또 다른 양구백자 모란문의 경우도 줄기선이 2줄이고 꽃송이 간에 간격도 좁아 분원리백자 모란문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양구백자의 줄기선상 모란문 가운데는 조선후기 분원리백자

모란문인 <그림 2>와 거의 흡사한 예도 있는데, 이 경우는 꽃송이는 청화로 시문하고, 이파리는 크롬으로 시문하여 녹색을 띤다. 크롬과 같은 안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하였던 도자기제조공동작업장이 양구에도 설립되어 새로운 제조기술의 수용이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양구백자 모란문은 세부표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분원리백자 모란문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전개되었다. 모란문 뿐 아니라 양구 백자는 해주, 청송, 회령 등 근대기 지방도자 가운데 조선후기 관요백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분원리 장인이 양구지역에 정착하여 요업을 한 것과 연관이 있다. 바로 분원을 떠나 양구로 온 사기장 김완배가 그 예로 그는 분원에서 방산토로 상납하는 갑반을 만들었는데 방산토가 좋다는 것을 알고는 양구로 가서 정착하였다.⁵¹⁾ 이로 인해 양구백자는 모란 문 뿐 아니라 여러 기종과 문양이 분원리 백자와 유사하여 분원리 백자의 영향을 넘어 백자양식을 이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⁵²⁾ 장인의 이동으로 인한 관요백자의 기술과 양식에 더하여 양질백토 산지의 잇점을 지녔던 양구백자는 질이 우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영화 이후 분원리 백자와 함께 왕실에 진상되었던 사실은 이러한 양구백자의 우수성을 잘 뒷받침해 준다.⁵³⁾

51) 유근형, 『고려청자』, 홍익재, 1982, 196-197쪽.

특별히 김완배가 만든 ‘갑반’은 갑번으로 만든 般으로 추정된다. 김완배 외에도 1890년대부터 분원 장인과 요업관계자들이 분원리를 떠나 각 지방으로 이동해서 가마를 운영하였다. 여주나 분원리 인근의 궁평리, 충북 충주시 미륵리 등지로 분원 사기장이 흩어져 활동했던 정황은 기록과 유물을 통해서도 입증된다(善生永助, 『朝鮮の窯業』, 朝鮮總督府, 1926, 124쪽; 최경화, 앞의 논문, 2014, 167쪽;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1995, 77쪽).

52) 분원리백자와 양구백자 양식 간에 유사성에 대해서는 정두섭, 앞의 논문, 2011, 141-144쪽 참조.

53) 1901년 御床에 들어갈 만들기 어려운 그릇(대접시3층, 용준, 龍瓶, 篆字대대접)은 분원리에서 만들고, 그 나머지 쉬운 물건들은 모두 양구 방산점에서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양구백자가 분원리백자에 버금갔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2. 해주백자

해주백자에서도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과 연관이 있는 모란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해주백자 모란문의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먼저 해주백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해주백자는 황해도 일대에서 생산된 백자로 일제강점기에는 지방 특산품으로 취급되어 생산이 활성화되었다. 특이하게도 옹기의 쓰임새(저장)를 지나나 자기로 구워졌는데, 형태·양식·기법 등이 모두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매우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⁵⁴⁾ 그러나 현재 해주백자 명칭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불리고 있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실정이다.⁵⁵⁾

해주백자는 대중을 이루는 원호(圓壺)를 비롯하여 입호(立壺)·병 등의 저장용 대형기가 주로 제작되었으며, 대접·접시·주자·소호·연적 등도 생산되었으나 수량이 매우 적다.⁵⁶⁾ 생산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황해도 해주군과 봉산군 일대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황해도 다른 지역과 평안남도 일대에까지 넓게 분포하였음이 밝혀졌다.⁵⁷⁾ 황해도는 이미 고려 초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저, 『하재일기』(六), 1901년 6월 10일, 2009.

54) 김윤정 외, 『한국도자사전』, 경인문화사, 2015, 524쪽.

55) 해주백자 이외에 해주도자, 해주자기 그리고 향아리류가 많은 관계로 해주향아리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명칭이 해주지역에서 생산된 백자라는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주백자’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주지역에는 매우 드물지만 백자 외에 흑유자도 있으므로 이와 구별을 위해서라도 ‘해주백자’라는 용어가 타당하다.

56) 특별히 접시·대접 등 일상기명의 수가 적은 것은 일본자기나 분원리 생산품, 혹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그릇을 선호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국내 출토 외래자기에 반상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해주자기 기명 구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윤희봉, 「1900년 전후, 황해도 해주백자의 생산과 소비 변화」, 『미술사연구』 31, 2016, 307-308쪽). 실제로도 해주의 일본인 사기전에서 倭器가 거래되어 이러한 상관성을 뒷받침해 준다(박은숙, 「燐磁會社의 사원 개별운영체제와 彩器 생산-1900~1910년 분원자기업의 변화」, 『한국사연구』 159호, 2012, 131쪽).

57) 사공량, 「근대기 황해도 해주도자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터 청자를 생산하였고, 조선 초에서 후기까지는 황해북도를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다가 근대기에 들어 생산의 중심지가 황해남도로 이동하였다.⁵⁸⁾

해주백자는 서울, 황해도, 평안도 등지에서 소비되었으며, 가격으로 보아 경제력 있는 중산층이 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⁵⁹⁾ 매우 정세하지는 않으나 비교적 질이 좋고 문양도 있어 대청이나 찬마루 등지에 두어 장식 겸 부를 과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⁰⁾ 근대기에 일본 학자들은 해주항아리를 백자의 범주에 넣었으며, 당시 최고급 조선 항아리라고 평가하였다.⁶¹⁾ 이러한 해주백자는 1900년 무렵부터 1950년대 어느 시점까지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²⁾.

해주백자 문양은 모란·국화·물고기·파초·불수감·대나무·분재·초화·노송·누각·수탑·학·기마인물 등 다종다양한데, 이중 모란이 대표적이다. 해주백자 모란문은 크게 절지형과 당초문으로 구분되나 역시 하나의 커다란 모란

10-14쪽. 전세품 기면에 나타나는 명문과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工藝』잡지에 수록된 글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주백자의 생산지가 황해도 해주군·봉산군·수안군·송화군을 비롯하여 평안남도 성천군·대동군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음을 밝혔다.

- 58) 이혜인, 「근대기 황해도 백자항아리의 제작배경과 양식적 특징」, 『미술사학』 37, 2019, 142쪽.
- 59) 사공량, 앞의 논문, 2016, 77-80쪽.
- 60) 정양모, 「흥미롭고 거리낌 없는 해주가마 백자의 세계」, 『해주가마, 또 다른 백자의 재발견』, 북촌민예관, 2012, 5쪽.
- 61) 佐藤榮枝, 『朝鮮の特産どこに 何があるか』, 京城: 朝鮮鐵道協會, 1933, 333쪽.
- 62) 사공량, 앞의 논문, 2016, 31-32쪽. 상한은 평안도 장인 白樂成이 1900년 무렵 황해도 봉산군 일대로 이주하면서 청화백자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해주백자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하한은 충주 미륵리와 청송 백자가마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신소재나 공장제 식기에 밀려 제작이 중단된 것을 감안하여 해주백자 역시 1950년대 어느 시점에 중단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인 지규식이 1891년 외읍사기점 중에서 특별히 해주지역을 견제한 사실은(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저, 『하재일기』(一), 1891년 7월 1일, 7월 16일, 7월 21일, 2005) 수준 있는 해주백자가 이미 제작되었음을 시사하여 상한을 1891년 무렵으로 소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꽃송이 주위로 이파리가 달려있고, 줄기 아랫부분이 왼쪽을 향하는 도상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반면 2-3개의 모란 꽃송이가 하나의 줄기선상으로 이어지는 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촌민예관 소장 백자청화철화모란문호는 모란꽃 한 송이만을 시문한 예로(그림 25),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과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모란 이파리의 크기가 19세기에 비해 커져 이파리의 비중이 증가되어 있다. 모란 꽃잎의 형태도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단순하게 변형되어 현재 크고 작은 6개의 원으로 꽃송이의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수술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위쪽에 모란 이파리 좌우로 대칭이 되게 작은 꽃봉오리로 보이는 표현이 2곳에 추가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조선후기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해주백자 모란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이다. 견부에는 종속문으로 파초문과 그물문을 교대로 시문하였는데, 이것 역시 여의두문이 주로 시문되었던 조선후기 관요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다. 또한 꽃은 철화로 시문하고 이파리는 청화로 시문하였는데, 꽃과 이파리에 각기 다른 안료를 사용하는 안료혼용 현상은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에서 보다 빈번하여 이 역시 해주백자의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해주백자 중에는 줄기 아래가 좌향(左向)하는 모란문에서 모란꽃 부분만 국화꽃으로 치환되고 이파리도 모란 이파리인 경우를 볼 수 있어, 조선후기 백자에서 이어지는 모란문의 인기가 얼마나 공고하였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 관요 양질백자에서만 볼 수 있는 양각 모란문을 해주백자에서는 볼 수 없어 해주백자의 질이 비교적 좋다고는 하나 관요백자의 질과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25>의 모란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략화, 추상화되었는데(그림 26),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에서 볼 수 있었던 줄기 아래가 좌향하는 표현이나 꽃송이 주변에 나있는 이파리의 특징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간략화 추상화된 모란문 가운데는 청화+산화크롬 안료를 혼용한 예도 살펴볼 수 있어, 해주백자의 빈번한 안료혼용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해주백자 모란문 가운데는 동떨어진 소재와의 조합, 자유로운 표현방식, 활달한 필치 등에서 민화를 연상시키는 예가 있다. 백자청화철화모란어문호가 그 예로 모란과 커다란 물고기가 함께 기면 위를 자유롭게 유영(遊泳)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였다(그림 27). 실제로 해주도자 문양은 민화를 그리던 화공집단을 고용하여 시문하였다는 기록이 있어⁶³⁾ 민화와와의 상관성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때 모란은 19세기 말 관요백자에서 볼 수 있는 줄기가 생략된 채 꽃+잎으로만 구성된 조합이어서 해주백자 모란문이 19세기 이후의 관요백자 영향을 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모란과 물고기 문양 역시 위의 <그림 25>과 같이 청화와 철화안료를 혼용하였다.

모란과 물고기를 함께 시문한 또 다른 해주백자 가운데는 커다란 물고기 주변에 방사상으로 모란 이파리만을 시문한 익살스러운 예도 있는데, 모란 꽃송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물고기가 대신한 셈이다.⁶⁴⁾ 이 경우도 청화안료와 함께 철화안료를 사용하여 해주백자의 빈번한 안료 혼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해주백자 모란문에는 안료혼용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주백자의 시문을 담당하였던 민화 화공들이 민화의 소재나 표현방식 뿐 아니라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안료를 백자 기면에 자연스럽게 차용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해주백자 모란문에는 조선후기 관요백자 모란문에서 볼 수 있는 모란절지문 뿐 아니라 모란당초문 또한 볼 수 있다. 백자청화철화모란당초어문이 그 예로 황으로 누운 만달 모양의 반개(半開)한 모란 꽃송이 아래로 넝쿨이 늘어져있다(그림 28). 그러나 이 경우도 당초문은 모란 이파리가 아닌 조선후

63) 山崎 享·山田義雄, 「黃海道鳳山郡山水面に於ける窯業原料調査報告」,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報告 第17回 第1-11號,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 1937-1938, 12쪽(사공랑, 앞의 논문, 2016, 58쪽에서 재인용).

64) 『해주가마, 또 다른 백자의 재발견』, 북촌민예관, 2012, 30쪽, NO.19.

기 관요백자 모란당초문에서 보았던 복숭아 이파리의 형태를 띠고 있어 조선후기 관요백자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조선후기 백자 모란당초문의 줄기가 크게 하나로 뻗어 나아갔던 것(그림 18)과는 달리 해주백자에서는 당초가 짧게 가닥가닥 세로의 형태로 시문되었다. 특별히 반개(半開)한 모란 꽃송이를 횡으로 누운 반달 모양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소치 허련의 모란도에 나타나는 특징이어서 허련의 모란도 혹은 그것을 민화로 변안한 민화 모란도의 영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그림 29, 우측 모란).

해주백자 모란당초문 가운데는 모란꽃은 생략된 채 모란의 이파리와 줄기만 당초문이 구성되어있는 예도 있다(그림 30). 꽃 없이 이파리와 줄기만으로 모란당초문을 구성하는 것은 조선후기 분원리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해주백자 고유의 특색이어서, 해주백자의 지역색을 잘 보여준다. 해주백자 생산지 중 모란문 자기를 생산하였던 곳으로는 황해도 송화군 조양면과 평안남도 대동군 마산동 가마 등이 알려져 있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해주백자 모란문은 이들 가마를 중심으로 생산된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⁶⁵⁾

65) 濱口良光, 『朝鮮工藝概觀』, 『工藝』第 69號, 日本民藝協會, 1936, 4-5쪽.

『朝鮮工藝概觀』에는 도자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예품들의 생산지와 특징이 기록되어 있다. 도자기는 당시 특색 있는 대표 요장 19곳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 아래 2곳의 가마에서 청화모란문 생산 내용이 있다.

十一. 黃海道 松禾郡 朝陽面

푸른 빛이 감도는 백자와 모란 문양의 청화백자 항아리를 번조한다.

十五. 平安南道 大同郡 馬山洞

조선시대의 오래된窯跡이 있지만, 현재는 두 곳 정도에서 청화모란문 도자와 大甕을 번조한다.

3. 『조선미술전람회도록』 수록 자기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근대기적 양상은 조선미술전람회 입선도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입선도자는 앞의 양구나 해주백자와는 달리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양상이 이러한 예술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이하 ‘조선미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조선미전은 1919년 3.1운동 발생에 따른 일제의 문화정치 일환으로 설립된 유일한 관설 공모전으로 조선의 미술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자 1922년 조선총독부 주치로 설립되었다. 이는 근대 일본의 관전(官展)인 ‘제국미술원미술전람회’를 모방한 것으로 식민지 조선의 미술이 일본 미술과 동화를 이루고, 중국에는 일본과의 동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⁶⁶⁾

조선미전은 신설 당시에는 동양화·서양화·서예의 3부를 두었으나, 1932년부터는 서예부를 폐지하는 대신 공예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1927년 일본 제국미술전람회 제 4부에 미술공예가 개설되면서 공예에 대한 미술품으로서 인식이 자리 잡은 것과 함께 당시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조선 공예에 대한 높은 평가와 관심과 연관이 깊다.⁶⁷⁾ 조선미전 공예부 신설은 공예품의 상품

66) 조선미전 및 그 창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참조. 안현정,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이학사, 2012; 이중희, 「조선미술전람회 창설에 대하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 1996; 정호진, 「조선미술전람회 제도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05, 1995.

결국 조선미전은 일본 제국주의 미술의 지방화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표면상으로는 조선미술 발달을 내세웠으나 실제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진정한 조선의 美나 전통성보다는 일본인의 미감에 맞춰진 작품들의 입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67) 노유니아,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의 개설 과정에 대한 고찰-전람회를 통한 근대 공예 개념의 형성과 확산」, 『미술사논단』 38, 2014, 95-111쪽. 특별히 일본인들이 조선 공예에 대해 높은 평가와 관심을 가진 것은 당시 추세인 민예와 향토예술에

성을 강조하며 산업적 경향에 치우쳐왔던 그동안의 상황에서 미술품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의 공예 개념을 확고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1930년대 들어서면 일본으로 유학 갔던 공예가들이 졸업 후 귀국해 국내 활동을 시작하면서 공예부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예품에 대한 미술개념이 점차 정착되어 갔다. 1932년 조선미전 공예부가 신설되면서는 도자를 비롯하여 금속, 칠기, 목공, 염색, 硝子, 紙工, 石工 등 13개 분야가 출품되었다.⁶⁸⁾

이 중 공예부 입선 도자의 장르를 보면 청자, 백자, 분청자, 도기 등으로, 이 중 청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청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일본이 식민화의 당위성을 위해 조선 문화를 저평가하는 반면 그 이전의 고려청자를 전통적인 것으로 부각시키면서 청자 제작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도자의 기종은 화병·발·접시·다완·필통·연적·향로·주자·탑·과자기(菓子器)·도조(陶彫)·도벽(陶壁)·수지(水指) 등으로 일본 기종도 섞여 있으며, 이 중 화병이 가장 많다.⁶⁹⁾ 당시 조선도자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일본인 출품자와 입상자가 조선인 보다 월등히 많으며, 입상자 대부분이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던 일본인 공방의 기술자들이다. 전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져 일본 취향의 도자양식을 유도하였으며 한국적 미감은 점차 상실되는 한계를 보였다.⁷⁰⁾

한편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전쟁으로 인한 총독부 예산부족으로 조선미전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도록 발간이 중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공예부 신설 이후 자기의 출품 상황은 1932-1940년까지 약 9년에 국한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록의 도자는 사진이 흑백이어서 세부 문양과 도자의 장르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부의 경우 도자 장르를 명시

대한 애호의 증가 때문이다.

68) 엄승희, 「1930년대 한국 근대도자 연구 :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도예연구』 제 23호, 2014, 65쪽.

69) 朝鮮總督府, 『朝鮮美術展覽會圖錄』, 경인문화사, 1982.

70) 엄승희, 앞의 논문, 2014, 68쪽.

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명시하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서라도 볼 때 조선미전도록에 실린 입선작들 가운데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과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약 3점 정도 있다. 우선 전승공방으로 명성을 날린 계룡요원의 운영기술자 스키미즈 타케에몬(杉光武右衛門)이 출품한 화병은 조선백자의 전통을 잘 계승한 순수 전승식으로⁷¹⁾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띤다(표 5-1). 즉 기형이나 모란의 형태는 전형적인 19세기 조선백자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자가 아닌 청자로 제작되었다. 여기서 모란은 조선후기 백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지형태로 줄기 아래가 좌향(左向)하고, 크고 탐스러운 꽃송이 주위로는 모란 이파리를 배치하였다. 이 자기는 조선후기 백자를 청자로 재해석한 것으로, 당시 고려청자에 대한 관심과 애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해준다. 일본인들의 고려청자에 대한 사랑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던 고려고분 발굴을 통해 고려청자의 존재가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이후부터로, 진품청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현청자로 대체되었다.⁷²⁾ 그리고 이 청자는 일본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기형과 문양 면에서 조선후기 백자 양식을 충실히 답습하였는데, 이렇듯 조선의 전통공예를 재현한 것은 공예부 심사위원들의 논고와 심사평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였던 공예부의 중요 방향성인 ‘조선의 특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⁷³⁾

이어 우미이 벤조(海井辨藏)의 출품작인 청자화병에서도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과 연계하여 모란문양을 볼 수 있다(표 5-2). 우선 이 화병은 청자

71) 조선미전 출품 도자는 전통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순수 전승식, 절충식(전승식+외래양식), 외래양식, 일본 관전 및 근대 일본 도예가들의 모방양식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전승식(순수 전승식, 절충식)이 주류를 이룬다.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 - 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328-339쪽.

72) 김윤정 외, 앞의 책, 2015, 404-405쪽, ‘재현청자’ 부분 참조.

73) 장주연,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에 나타난 ‘조선 향토색’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3-27쪽. 공예부의 특징으로는 ‘조선의 특색’ 외에도 일본 제전을 모방하거나 이전의 특선작을 참고하여 제작하는 경향 등도 살펴볼 수 있다.

매병의 형태를 본뻘으나 구부가 매우 넓어 차이를 보인다. 동체 상하에는 종속문을 배치한 뒤 중심부에 모란당초문을 양각하였다. 동체 왼쪽에 커다란 모란 꽃송이를 배치하고 주위로 큰 덩굴이 힘차게 뻗어 나가는데, 이때 덩굴은 조선후기 백자 모란당초문에서 볼 수 있는 당초의 형태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선후기 백자 모란당초문은 대부분이 덩굴의 이파리가 모란 이파리가 아닌 길고 끝이 뾰족한 복숭아 이파리를 시문하였는데(그림 18), 화병의 당초문 역시 복숭아 이파리를 양각하여 조선후기 백자의 모란당초문을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병의 모란 꽃송이의 형태와 이파리 중앙부가 지나치게 넓은 복숭아 이파리는 조선후기 백자 모란당초문의 덩굴 표현과는 차이가 있어 작가가 의도적인 변형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청자화병은 고려청자 매병의 기형과 조선후기 백자의 모란당초문을 적절히 변형시켜 만든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미전 도록에는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의 특징에 더하여 당시 고려청자 애호와 재현청자 유행으로 고려청자에서 볼 수 있는 모란문의 특징이 가미된 예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고급 청자공장인 한양 고려소 소속 기술자 무네타카 다케시(宗高猛)가 출품한 청자화병이 그 예로 동체 중심부에 흑백상감과 함께 동채(銅彩)한 것으로 보이는 큰 모란을 시문하였다(표 5-3). 이때 모란은 커다란 꽃송이 위쪽 1곳에 이파리를 시문하고, 줄기 아래가 좌향(左向)하다가 이내 반전하여 '6'자 모양으로 둥글게 말려있다. 이러한 모란형태는 조선후기 백자모란문과 동일하나, 모란의 줄기 아래가 '6'자 모양으로 둥글게 말리는 형태는 조선후기 백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으로, 이것은 오히려 고려청자 상감모란문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표 5-4, 그림 17). 이는 곧 당시 애호와 수장의 대상이 되었던 고려청자와 재현청자의 모란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실제로 이 청자화병은 고려청자의 문양 일부와 상감기법, 안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고려청자와 친연성 또한 살펴볼 수 있다.

<표 5> 『조선미술전람회도록』에 수록된 도자 모란문양

			
<p><표 5-1> 簿バタ式青磁花瓶, 大田 鷄月 杉光武右衛門(『조선미술전람회도록』16 권(1937))</p>		<p><표 5-2> 青磁浮牡丹花瓶, 京城 漢山 海井辨藏(『조선미술전람회도록』12권(1 933))</p>	
			
<p><표 5-3> 漢陽高麗燒青磁象嵌 辰砂花瓶, 京畿春嶺 宗高猛(『조선미술전람회도록』14권(193 5))</p>		<p><표 5-4> 청자상감모란문합, 12세기, 고 4.1cm, 구경 9.6cm, 저경 3.9cm, 호림박물관</p>	

V. 맺음말

조선후기에는 조선 전·중기 청화백자에는 표현되지 않던 모란이 시문되었는데, 이것은 18세기 화단에서 일반 감상화로서 문인화풍의 모란도가 제작되기 시작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모란도 제작에는 조선후기 사회의 모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인식변화는 당시 사상·경제·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었다.

조선후기 백자에 가장 많이 시문된 것은 도안풍의 모란으로 당초형 보다는 절지형이 주로 시문되었다. 절지형 모란은 커다란 모란꽃 한 송이만을 시문한 것과 2-3개의 모란 꽃송이를 하나의 줄기선상에 시문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절지형 모란 도상은 모두 그 연원을 당·송·오대 등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서모란(瑞牡丹)에까지 소급해볼 수 있었다. 당대에 시작하여 송대에 구체화되는 서모란 이미지는 중국 회화작품은 물론 요·북송대 도자에 이어 원·명·청대 도자 및 공예품에까지 이어졌으며, 한·중 간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도자를 비롯하여 공예품 및 궁모란병 등에도 나타났다. 도자에서는 고려청자와 그의 잔재를 보이는 조선전기 분청자 및 상감백자 등에 시문되었으나, 조선적 면모를 보이는 조선전기 청화백자에는 당시 국시(國是)로 내세운 유교로 인해 문양화 되지 못하다가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모란이 백자 기면에 전면 등장하여 근대기까지 지속되었다.

도상의 연원을 당·송대 서모란에 두고 있는 조선후기 분원리백자 절지형 모란문은 모두 18세기 이후 민화의 발달로 인해 꽃송이가 민화풍으로 시문된 것들이 확인되며, 조선후기 모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는 모란을 사군자의 반열에까지 올려 대화·대나무·국화 등과 함께 하나의 기면에 시문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2-3개의 꽃송이가 하나의 줄기선상에 위치하는 절지형 모란은 도자 기면의 여건에 따라 횡으로, 수직으로 혹은 도자의 형태에 따라 휘어지는 모습으로 시문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자 이외에 요(腰輿)와

같은 공예품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이 같은 모습은 궁모란병에 나타나는 즐기선상 모란의 일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당초형의 모란은 절지형 모란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넝쿨 이파리가 모란이 아닌 복숭아 이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조선후기 모란문양에 앞서 발달한 복숭아문양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백자 화회문양 중 가장 많은 애호 속에 시문되었던 모란문은 근대기에도 그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뚜렷한 지역색을 띠며 발전하였던 양구나 해주백자에 이어 일상용기가 아닌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평가되는 조선미전 입선작들에서도 모란문이 사용되었다. 양구백자 모란문은 19세기 말 분원리 장인이 양구로 가서 정착하면서 제자(製磁) 활동을 하였던 관계로 비교적 분원리백자 모란문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항들은 분원리 백자 모란문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해주백자 모란문 역시 크기는 분원리 백자 모란문과 유사성을 보이거나 민화 화공의 문양시문으로 인해 민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속문으로 빈번히 사용된 파초+그물문의 조합이나, 당초 즐기의 곡선미를 매우 강조하며 세로로 가닥가닥 늘어뜨린 당초문의 모습 등은 분원리백자 모란당초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해주백자 고유의 독특한 모습이다.

조선미전 입선도자에서도 조선후기 백자의 기형과 모란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두 백자가 아닌 청자로 제작하였다. 그것은 이 시기 고려청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호로 인해 조선후기 백자 기형과 모란문이 청자로 재해석된 것으로, 입선작들에서 조선의 전통도자 모티브(기형, 문양)를 재현한 것은 공예부의 중요 방향성인 ‘조선의 특색’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후기 백자 모란문은 연원을 중국 고대 고분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조선후기 이전 자기는 물론 근대기 예술도자에도 시문되

어 오랜 기간 애호 속에서 시문의 전통 또한 장구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도판 목록 】



<그림 1> <백자청화모란문호>, 1851년, '신희큰던고간티등쇼스삼',
고 15.7cm, 구경 10.3cm, 저경 9.9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백자청화모란문대접>, 1871년, '신미제슈합고간칠륙' '大',
고 6.2cm, 구경 14.2cm, 저경 6.7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3> <모란호석도>, 왕처직묘 후실북벽, 오대 10세기, 하북성 곡양현



<그림 4> <모란도>, 대동십리포28호묘, 묘실북벽, 요대, 산서성 대동성 서남쪽 십리포



<그림 5> <모란도> 4폭병 중 일부, 조선후기, 비단채색, 전체 271×396.8cm, 화면 각폭 212.3×89.5cm, 국립고궁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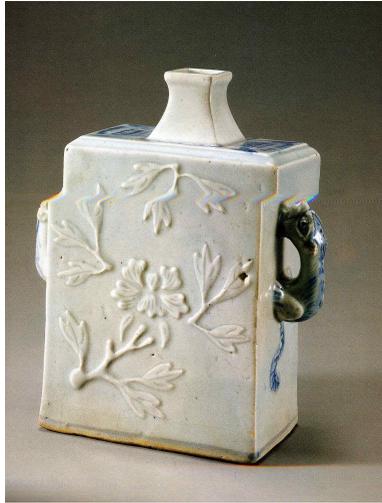
<그림 6> <백자청화모란공작문과형호>, 18세기 중반, 고 29.5cm, 삼성미술관 리움



<그림 7> <백자청화모란문접시>, 19세기, 고 4.0cm, 구경 16.1cm, 저경 9.6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8> <화조도>, 조선후기, 지본채색, 55.0×38.8cm, 호암미술관



<그림 9> <백자양각청채모란문사각편병>, 19세기, 고 18.6cm, 구경 2.8cm,
저경 12.1×7.1cm, 개인 소장



<그림 10> <三彩白地印花牡丹紋菱花盤>, 요대 11-12세기, 고 2.6cm, 구경 17.9×30.1cm,
저경 13.4×25.9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그림 11> <五彩牡丹獅紋罐>, 청대 강희, 총고 12.7cm, 구경 4.5cm, 저경 5.5cm, 고궁박물관



<그림 12> <백자철화모란접문호>, 19세기 후반, 고 22.2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그림 13> <法花牡丹孔雀紋壺>, 명 가정, 고 37.0cm, 일본 出光美術館



<그림 14> <青花孔雀穿牡丹紋扁壺>, 원, 고 36.5cm, 이란 국가박물관



<그림 15> <백자양각사군자문각병>, 19세기, 고 20.1cm, 저경 10.6×10.8cm,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그림 15-1> <백자양각사군자문각병>의 국화-대나무-매화 부분



<그림 16> 『세종실록』 「오례」, 흥례 중 '明器服玩腰舉', 조선 1454, 종이에 먹, 55×30.2cm,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보



<그림 17> <청자상감국화모란문과형주자>, 13세기, 고 24.0cm, 이화여대박물관



<그림 17-1> <청자상감국화모란문과형주자>의 모란문 부분



<그림 18> <백자청화동채모란당초문호>, 고 29.2cm, 구경 13.4cm, 安宅 컬렉션



<그림 19> <청자상감국모란문유병>, 12세기, 고 5.0cm, 구경 2.7cm, 저경 3.6cm, 한국



<그림 20> <백자청화모란공작문접시>, 19세기, 고 2.5cm, 구경 14.2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1> <交倚>, 20세기 초, 나무에 황칠, 비단, 가죽, 최대높이 99cm, 최대너비 132.5cm, 창덕궁 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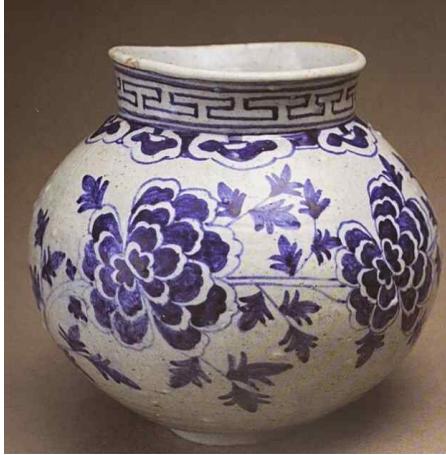
<그림 21-1> <交倚> 좌판의 모란 가죽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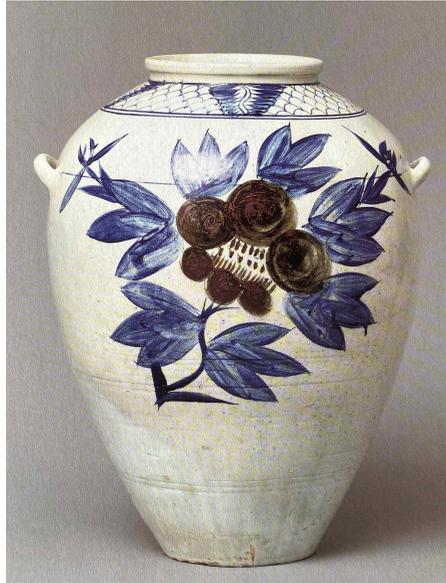
<그림 22> <백자청화모란문호>. 고 17.5cm, 구경 25.5cm, 저경 11.0cm, 양구백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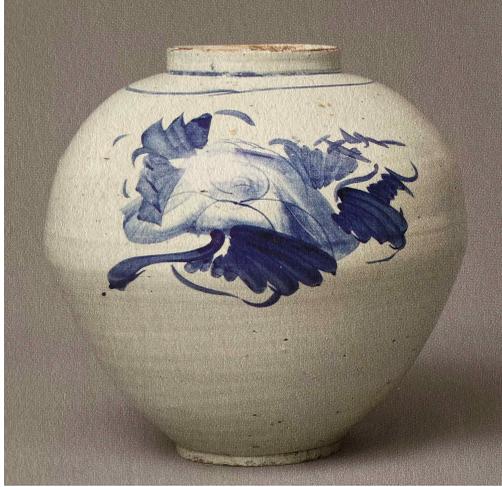
<그림 23> <백자청화모란매화문호>. 크기 미상, 양구백자박물관



<그림 24> <백자청화모란불수문호, 고 23.0cm, 구경 15.5cm, 저경 9.5cm, 양구백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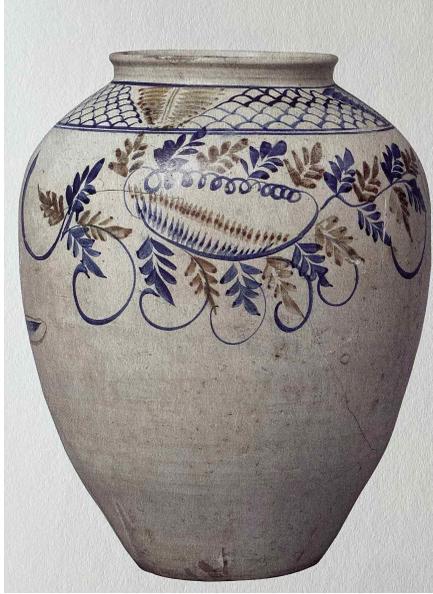
<그림 25> <백자청화철화모란문호>, 조선후기, 64.6×50.0cm, 북촌민예관



<그림 26> <백자청화모란국화문호>, 조선후기, 41.6×39.5cm, 북촌민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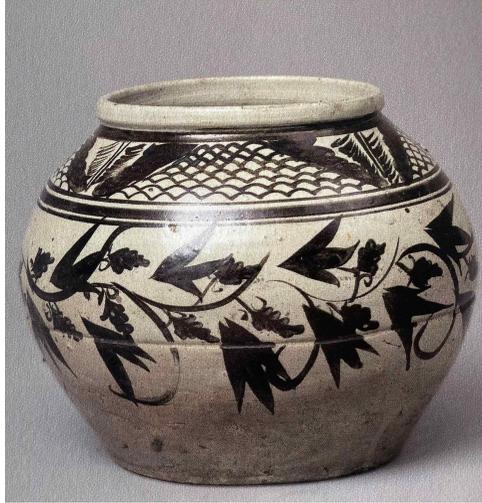
<그림 27> <백자청화철화모란어문호>, 조선후기, 32.0×34.0cm, 북촌민예관



<그림 28> <백자청화철화모란어문호>, 조선후기, 61.0×48.2cm, 북촌민예관



<그림 29> 허련 <小癡墨妙帖>, 19세기, 지본수묵, 26×50.8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0> <백자철화모란어문호>, 조선후기, 26.6×33.0, 북촌민예관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高宗實錄』
『謹齋集』
『分院磁器貢所節目』
『四佳集』
『雪岫外史』
『續大典』
『承政院日記』
『顏樂堂集』
『楊根邑誌』
『六典條例』
『太祖實錄』
『太宗實錄』
『豹菴遺稿』

<http://encykorea.aks.ac.kr>

- 강지원, 「조선 後半期 寫意花鳥畫 研究 :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강혜선, 「조선후기 박물학적 취향과 김려의 한시」, 『한국문학논총』 제 34집, 2006.
- 高東煥, 『朝鮮後期 서울 商業發達史 研究』, 지식산업사, 1998.
- 고연희, 「한·중 영모화초화의 정치적 성격」,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근대의 희로애락을 빛다』, 천안박물관, 2016.
- 金鐘圓, 『朝淸交涉史 研究 : 貿易關係를 中心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김유진, 「조선후기 청화백자 모란도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윤정 외, 『한국도자사전』, 경인문화사, 2015.
- 김지애, 「현재 심사정의 화조화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金紅男, 「朝鮮時代‘宮牡丹屏’研究」, 『美術史論壇』 제 9호, 1999.
- 노유니아,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의 개설 과정에 대한 고찰-전람회를 통한 근대 공예 개념의 형성과 확산」, 『미술사논단』 38, 2014.
- 노자키 세이킨, 변영섭·안영길 역, 『중국길상도안』, 예경산업사, 1992.
- 박선경, 「18세기 조선시대 청화백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박은숙, 「燐磁會社의 사원 개별운영체제와 彩器 생산-1900~1910년 분원자기업의 변화」, 『한국사연구』159호, 2012.
- 박은화, 「五代·遼·北宋代古墳壁畫의 花鳥畫考察」, 『中國史研究』 제 91집, 2014.
- 사공량, 「근대기 황해도 해주도자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저, 『하재일기』(一), 2005.
 _____, 『하재일기』(六), 2009.
- 심성미, 「조선후기 모란도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19세기 모란도 성행과 조선사회의 부귀지향」, 『講座美術史』 제 46호, 2016.
- 『양구 방산백자 600년의 빛』, 방산자기박물관, 2007.
- 『안녕 모란』, 국립고궁박물관, 2021.
- 『양구칠전리 백자가마터』, 국립춘천박물관, 2013.
- 안현정,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이학사, 2012.
-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정책과 제작구조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1930년대 한국 근대도자 연구 :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도예연구』 제 23호, 2014.
 _____,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 - 도자정책과 제작구조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14.
- 유근형, 『고려청자』, 홍익재, 1982.

- 유봉학, 「19세기 경화사족의 생활과 사상 -해강 최한기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 1994.
-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윤희봉, 「1900년 전후, 황해도 해주백자의 생산과 소비 변화」, 『미술사연구』 31, 2016.
- 이중희, 「조선미술전람회 창설에 대하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3, 1996.
- 이혜인, 「근대기 황해도 백자항아리의 제작배경과 양식적 특징」, 『미술사학』 37, 2019.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廣州 分院理窯 靑畫白磁』, 1994.
- _____, 『청자』, 2017.
- _____, 『분청사기』, 2019.
- 장주연, 「조선미술전람회 공예부에 나타난 ‘조선 향토색’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정두섭, 「양구지역 백자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정민,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 2005.
- 정양모, 「흥미롭고 거리낌 없는 해주가마 백자의 세계」, 『해주가마, 또 다른 백자의 재발견』, 북촌민예관, 2012.
- 정호진, 「조선미술전람회 제도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05, 1995.
- 朝鮮總督府, 『朝鮮美術展覽會圖錄』, 경인문화사, 1982.
- 최경화, 「朝鮮後期 分院里時期 官窯白磁研究-1752-1895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조선후기 청화백자 문양과 민화와의 상관성 고찰」, 『한국문화연구』 34, 2018.
-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1995.
- 『해주가마, 또 다른 백자의 재발견』, 북촌민예관, 2012.
- 『호림박물관소장품선집』 -靑瓷 I -, 호림박물관 1991.
- 故宮博物院 編, 王健華 主編, 『故宮博物院藏清代景德鎮民窯瓷器』, 1,2,3권, 北京 : 故宮出版社, 2014.
- 故宮博物院 編, 『故宮博物院藏元代瓷器』 上,下, 北京 : 故宮出版社, 2016.

- 農商工部, 『官立工業傳習所報告』第一回, 京城 : 農商工部, 1909.
- 『白と黒の競演 -中國磁州窯系陶器の世界-』, 大阪市立美術館, 2002.
- 善生永助, 『朝鮮の窯業』, 朝鮮總督府, 1926.
- 『元明清青花』, 北京工藝美術出版社, 2010.
- 佐藤榮枝, 『朝鮮の特産どこに 何があるか』, 京城 : 朝鮮鐵道協會, 1933, 333쪽.
-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柴田コレクション總目錄』, 2003.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WHITE PORCELAIN
WITH THE PEONY DESIGN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I KYUNGHWA (CHOI, KYUNG HWA)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peony design, which had not been used in the early and mid-Joseon Dynasty, started to be drawn white porcelain painted with underglazed blue. This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emergence of peony paintings in the art world during the 18th century. The most commonly drawn design on white porcelain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the stylized peony, which was primarily drawn in the spray pattern(折枝) rather than the scroll pattern(唐草). The origin of the peony spray motif can trace back to the auspicious peony(瑞牡丹) depicted on the ancient tomb murals of the Tang, Song, and Five Dynasties. This motif appeared not only in Chinese paintings but also in porcelain of the Yuan, Ming, and Qing periods, further making its way into Korean porcelain and paintings through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in the early Joseon period, it could not be used as a motif of white porcelain painted with underglazed blue due to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the national ideology of Joseon, but the change in social perception towards the peony in the late Joseon Dynasty eventually enabled it to appear on the surface of white porcelain.

White porcelain bearing the peony design in the late Joseon period included

peony blossoms drawn in the folk painting style on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folk paintings after the 18th century. In addition, the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of peony elevated it to the level of the Four Gracious Plants, leading it to be drawn on one surface alongside plum, orchid, chrysanthemum, etc. The white porcelain peony design from the late Joseon period maintained its strong presence in the modern era, continuing to be used in Yanggu and Haeju white porcelains, which developed with distinctive local characters, as well as the winning porcelain of the Joseon Art Exhibition, which were regarded as works of art rather than containers for everyday use.

Key Words : Late Joseon Dynasty, Stylized Peony design, Scroll pattern, Spray pattern, Auspicious peony, Yanggu white porcelain, Haeju white porcelain, Winning porcelain of the Joseon Art Exhibition